朝鮮日報

朝刊夕刊合六面

購讀料 朝刊、夕刊一個月金六拾錢 三個月先金一圓七拾五錢 六個月先金 (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活字一行金壹圓 四號活字一行金貳圓 特別指定料 五號每行參拾錢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朝鮮日報社

論說

女性의밧는壓迫

一

朝鮮사람全體가壓迫을반히밧는故로 女性의밧는壓迫에對하여는 不關焉하는傾向이업지아니하나 그中에도女性은朝鮮사람인資格에잇서서壓迫을밧고또朝鮮사람中의女性인資格에잇서 別로히壓迫을밧는故로 그問題는더욱分離하여가지고觀察할必要가잇다 사람들이만히말하기를 西洋에잇서서는女尊男卑라고 東洋에잇서서는男尊女卑라고하나 이는表面上觀察에지나지못하는것이요 西洋에잇서서나東洋에잇서서나 現在에잇서서는男尊女卑랴은 否認치못할事實이라하겟다

二

西洋에잇서서 女尊男卑가리되는것은 電車를타던지汽車를타던지 女子가들어오면男子가자리를내여주고 夫婦가同行할때에는 무슨物品을사더라도 그것을男子가携帶하고 家事處理할때에는 반드시女子의意見을들어서하고 宴會席上에서도 女子를先頭에또는上席에안치기때문이다 그러한風習은 男女交際가頻繁치못한東洋에잇서서는 만히보지못하는바이나 心理는역시그와同一한바잇스니 女性에對하야 一種의敬意를表하는것이다 그러나그는 어느程度까지는 弱者에對하야 愛護를加하여야하겟다는心理에서도 出發한것이나 그것으로서 女尊男卑를云謂할것은 되지못하고 모든權力은依然히 男子가掌握하고잇섯다 그리하다가 最近에와서야 勞農露西亞에잇서서 또獨逸에잇서서 制度上으로도의 男女平等을實現하게된것이다

三

그러나 露西亞에서는制度上의平等만가지고는 참으로男女의同權을實現할수업다하야 더나아가서 女子는男子보다더保護하는手段을取하고잇는터이다 우리朝鮮에잇서서는 男女의同權이니는것은 아즉생각도못하여보는것이나 每日新聞紙上에報道되는家庭의慘劇은모도다女性壓迫의實例가아님이업다고하여도 過言이아니라할수잇겟다 朝鮮女子에게는 寡婦의설음이잇고 妾된者의설음이잇고 또賣淫婦의설움이잇서 正式結婚못하얏던것이女子의痛恨事이엿섯고 妾된女子의社會的待遇가恒常苦痛을伴來하는것이엿섯고 妾된女子에게는男便의虐待乃至離婚의脅威가大難關이엿섯스나 이러한苦痛은男子에게는업는것이다 이와가티無數의壓迫을當하는女性들은當然히社會的職務를擔當하엿스나 그만한功勞에對하여는 그만한報償이잇서야할것이어늘 그러하야 도로혀苦痛의種子를더하게하야 競爭場裡에잇서서 男子보다劣敗의地位에떠러지게하는原因을作하게하는것이다

四

그러면社會에서 女性의當見的職務가重大하다는것을認定하야 마치오늘날陸海軍軍人이國家에從事하는功勞와同等으로또는그以上으로, 社會的으로表彰하는方式을取하여야하겟고 또그敎育의程度를向上식혀서 男子에게만衣食을全혀依賴하는弊害와 的結婚의弊害를 矯正하여야할것이다 그때에잇서서 經濟上으로서 獨立한人格이結合하게되면 男子의專制를免하고 따러서結合離散도 더욱自由롭게될것이다

奉天大官의族屬等避難
張氏의暴政結果로 閭巷人心極度惡化
其身邊이危險

(奉天電) 張作霖氏의銀鈔業者虐殺의暴政은其他 遂하야民心이益益惡化하는中인데張作霖氏를筆頭로奉天城居住의大官及其家族의身邊에危害를加코저하는者가多하야何時暴動이勃發할는지未知임으로萬一을念慮하야張作霖第五夫人、吳俊陞、楊宇霆、湯玉麟、張作相氏等의夫人令孃、令息五十餘名은避暑를일삼고二十四日大連에避하기로되얏는바當局은何故인지此를秘密에附하더라

孫氏募兵漸進捗
軍隊와彈藥等을南京에輸送
上海에戒嚴令宣布?

(上海二十三日發) 既報孫傳芳의江西募兵은其後着着進捗하야特히一兩日前부터多數의軍隊彈藥、浙江으로부터當地經由南京에輸送되는中인바孫傳芳은省當局의汽船三隻을徵發하야是等輸送에使用하고同時에江南機器局으로하야금彈藥製造를急히하게하는中인즉或은上海에戒嚴令이宣布될는지도未知이더라

北伐反對警告文
蔣介石氏에게發送
此는孫氏의對蔣宣戰布告

(上海二十三日發) 孫傳芳氏는北伐軍에反對하고二十二日蔣介石氏에게湖南出兵의目的如何、國을騷하야犧牲에供함과如한盲動은看過할수가업다共産主義는全國民의恐怖하는바로保國安民을爲하야實尚치안을수업다고警告를發하엿는데此는孫氏의蔣氏에對한宣戰布告로볼터이며蔣氏의返答如何에依하야는積極的으로攻勢에出할터이더라

漸次濃厚하는湖南의戰雲
蔣、陳、孫、吳等各奮起
形勢逐日險惡

(東京電) 某處着電에依하면吳佩孚氏는二十二日에出發하야漢口에來着하기로되엿다 一方孫傳芳氏도昨今兵을出動식히는中인데此는蔣介石의廣東北伐軍이江西省에侵入하려는것을防止하려는것이며陳炯明軍도福建方面으로부터廣東軍의背後를突擊하려하야形勢가逐日險惡하는中임으로吳佩孚氏도急遽히漢口에歸하야北伐軍에備할必要에切迫하얏다 湖南의戰雲은漸次濃厚하게되는中이더라

劉督辦獨立宣言
吳氏의罪狀을列擧하고 北京政府의施設을非難

(東京電) 某處着電에依하면重慶劉督辦은二十日付로四川省의獨立을宣言하고北京政府의一切施設을非難後吳佩孚의罪狀을列擧하엿다 그런데四川省長楊森은右宣言에反對하고十九日萬縣에이르러正式으로省長就任의旨를發表하엿슴으로戰爭은未免할形勢이더라

『탄』保護領問題
英國側의態度

(巴里二十二日發) 『모로코』에在한西班牙의保護領에『탄쟈ー』를編入할것이라는西班牙의要求에關하야英吉利公文은同國外務省이顯著히保留的態度로써此에臨함을示한다는데英吉利는『탄쟈ー』問題가『쩨네바』에서討議되는것을깁버하지안코關係國間에서直接交涉할것을希望하더라

希臘前統領被捉
海軍工廠內에隔離

(아덴二十三日發) 既報한希臘前大統領『팡가로스』將軍은伊太利에向하야驅逐艦으로亡命하던途中逮捕되야隔離되엿는데目下海軍工廠內에在하더라

佛國鐵道借款
瑞西로부터

(巴里二十二日發) 『포앙카레』氏는『스위쓰』財政長官과의間에國有鐵道借款協定에依하야佛國鐵道借款金二千萬瑞西法의使用할協定에調印하엿다 右借款金은佛國西에서二十五箇年에亘하야償還될터이오利子는七分이더라

來訪

▲二宮治氏(東拓監査課長)二十三日新任人事次本社來訪
▲加藤俠平氏(同京城支店支配人)同上
▲吉岡襄三郎氏(同釜山支店支配人)同上

平北青年雄辯會
枇峴學友主催
聽衆雲集、空前盛況

枇峴留學生學友會主催와本報枇峴支局後援으로第一回平北青年聽覺雄辯大會를開催한다함은既報한바어니와預定과如히去二十日當地公立普通學校講堂에서開催되바定刻前부터雲集한聽衆은無慮男女五百餘名이란大盛況으로金春鶴氏司會下에奏樂開會하고審判規定通過가끗난後各辯士의時宜에適合하고精神을喚起하는雄辯을吐하게되엿는데特히우리朝鮮이비참절망한處地를버서날方策은朝鮮엿을부둥켜안고最後一刻까지外울뿐이라는李貞根君의말과우리朝鮮은政治的으로經濟的으로날날이破滅을當하야朝鮮엿을버리고男負女戴하야南北滿洲로쫏기어가지만그곳조차살길이업고오직살길은農村復興物産獎勵勤儉節約에잇다고부르지즌張亨福君의말과우리도남과갓치아니남보다낫게살方針은二千萬이團合하야한어덩이가되며軍艦을外치난데잇다고力說한金良善君의말이잇슨後新義州에잇는金應灼君의流暢한獨唱은聽衆의心身을沈醉케하엿스며審判으로一等에金良善君二等에張亨福君三等에李貞根君이란宣言이잇슨後 意味깁흔熟辯을吐하야聽衆에게만흔覺醒과興味를주고無事히閉會하엿다더라(楊市)

△演題와氏名
最後一刻까지活動하자 定州 李貞根
우리의살길은? 郭山 張亨福
成功은繼續的이다 義州 李春根
人生의三大要素와우리의最大缺點 龍川 孔源
新時代와新生活 新義州 金亨錫
바다는새生活 宣川 金良善
朝鮮靑年은무엇을일가 新義州 朴昌明

芙江青年定總

八月十九日午後八時漆仁公普校講堂內에서第一回定期總會를開하고會長李容懋氏司會下에서點名、規約定委員會에서制定된規約을朗讀通過、會計、經過報告、顧問推薦、來賓朴在植氏熱烈한祝辭와各部長所感이끗난後同十一時頃에會員一同은萬歲三唱으로閉會하엿다는데顧問은如左하다고
李觀鉉 韓鏞鉉 朴魯泰 郭成吉 郭興元
△決議事項
一、會費整理의件 一、會員增募의件 一、雄辯開催의件(漆仁)

花江少年討論

金化邑耶蘇敎會內花江少年會에서는每月二回式討論會를開催하기로하고本月二十七日下午八時부터本邑禮拜堂內에서한다는데一般當地人士는多數來聽하기를바란다는바演題와演士는如左하다더라
演題 學業의成功은?才?勤?
演士 才便 康雨東 孟基善 金柱瀅
勤便 孔昌淳 金富鋼 廉弁東 金青龍 李永勳 廉昕(金化)

筏橋女青創立
松明學院講堂에서

既報=全南筏橋에서는去十五日午後八時에松明學院講堂에모여女子青年會創立總會를開催하고臨時議長李福德氏司會로執行部를選定하야會席을整齊하고各處에서온祝電祝文을朗讀하고經過報告가잇슨後諸般事項을討議하고同十時에閉會하엿다는데各部委員과討議事項及綱領은左와如하더라(筏橋)
△各部委員氏名
庶務部李福德、教養部李成學 宣傳部崔正任文明淑具福女
△綱領(略)
△討議事項
一、女性思想運動에關한件
一、女子青年運動에關한件
一、小女運動에關한件
一、家庭婦人에關한件
一、女性迷信打破에關한件
一、性的問題에關한件
一、教養問題에關한件

興學稧役員會 ‖全北

金堤郡孔德面興學稧에서는지난十七日午後一時에孔德面事務所에서安祥玉氏의司會로役員會를開催하고基本金徵收成績報告를마친後다시여러가지로徵收方針을審議하고役員을改選한後同五時에無事히閉會하엿는데新任役員은如左하다고(金堤)
回龍里支部長 李義相
黃山里支部長 柳興岩

法興講演會
大盛況裡에

平北龍川郡東下面法興洞有志靑年들은地方에文化普及을目的하야去十四日午後九時부터長山俱樂部講演團을請邀하야가지고法興幼稚園內에서講演會를開催케되엿는데集衆은定刻前부터雲集하야場內場外에人山人海를일우어實로立錐의餘地가업스리만한大盛況裡에서金麗柱의開會辭를비롯하야張洪楠君은『父母의責任』題로白學信君은『童話』張日鼎은『機械文明』이란題로金東吳君은『中學生生活』이란題로各

納涼童話會 ‖無事終了

演安基督敎夏期兒童聖經學校主催로同敎會堂에서는支離한長霖과酷毒한暑炎의남어지一般어린이들에게하루밤동안滋味잇는慰安을주고자去二十日下午八時半부터童話童劇大會를同禮拜堂內에서開催하엿는데定刻前부터雲集하는群衆은無慮五百餘名에達하야堂內堂外에는立錐의餘地가업시人山人海로大盛況을呈하얏는데먼저司會安升龍氏의開會辭가끗나자同校生徒一般의流暢한讚頌歌로順序에依하야十餘種의童話童劇과여러가지興味津津한童話童劇을行하얏는데最中蔡乙孫孃의獨唱과金瓊順少女의『깁붐의生活』이라는童話는可謂萬綠叢中의一朶紅으로一般聽衆에게만흔興味를주고同十一時에無事히閉會하얏다더라(演安)

農業青年創立

北青郡新浦面三上里에서는長村農業青年들이團結키爲하야本月十九日에農業青年會創立總會를開催하고任員은左와如히選定하엿다고
會長安春鎬 總務李應洙 體育部李素殷 宣傳部朴鍾勳 顧問康廣漢 安千鎬(北青)

元山商業校
販賣實習

夏期休暇를利用하야第一回實習販賣를해서良好한成績을得한元山商業學校에서는第二回를지난二十一日부터二十五日까지五日間府內仲町公園에서每日午後三時부터十一時外지實習販賣를行한다는데同情이면만히와서사주기를바란다고(元山)

納涼音樂大會
靈武少年主催

咸南靈武市少年會에서는來二十一日午後八時에市內에서納涼音樂大會를開催하려고諸般準備와練習에大奔忙中이라는바靈武에는처음되는일임으로一般은매우기다린다고(靈武)

夏期講話會 ‖無事終了

慶南巨濟島巨濟青年聯盟에서는同青年會館에서지난十日午前十時부터第三回短期社會學講話會를開催한다함은既報하엿거니와一般聽講員이만허자못盛況을일우엇스며去十七日에無事閉會하엿다더라(巨濟)

端川에衛生展覽會

咸鏡南道衛生課에서는端川警察署와밋郡廳主催로지난十八日부터二十日外지四日間豫定으로當地公立普通學校內에다衛生展覽會를開催하엿는데每日觀覽者가三千에達한다하며그模型陳列과實物表本이豫想外俱備하야觀覽者로하여금적지안은有益을준다하며더욱이밤엔活動寫眞으로映寫하야一般에게實感이잇게한다한다그래서當地飲食店組合과宿屋組合에서는邑內곳곳에다祝門까지세워주어祝意를表하야준다더라(端川)

嶺美少年會
廿一日에創立

平北嶺美에는靑年의모임으로嶺美俱樂部가잇슬뿐이엇고여러가지事業을進行하여왓스나少年의團體가업서어린이입서切實히느낀嶺美少年會를發起하고그準備에奔忙中이던바去二十一日午後三時半부터嶺美基督敎禮拜堂內에서創立總會를開催하고臨時議長金秉徽君의司會下에서開會辭가잇슨後同會副會尹亮振氏의

仁川在米增加

仁川穀物協會調査에依한市內五銀行의本月二十一日現在의在庫數는前週에比하면合格米는六千五百八十二叺을增加하엿는데在品을細別하면左記와如하더라
△玄米四斗入四〇、七六三叺△白米三斗入二七、四斗入二八四叺△正租叺入七五四叺俵入七、八四一俵△大豆四斗入三三、六二四叺五斗入三一五叺△小豆四斗入一四〇叺△小麥四斗入二、二〇四叺△粉米四斗入七五二叺△粟七斗入八七九袋△糯米四斗入一九八叺五斗入一一〇叺七斗入七一二袋△外國米七斗入一五〇袋(小米)一八二〇袋(仁川)

群山留學生定總

群山에서京城及日本等地로留學하는留學生으로組織된群山學友會에서는지난十八日午後三時부터第六回定期總會를金容澤君의司會로同會館에서開催하고諸事項을討議한後任員을改選하엿는데任員의氏名은如左하다고
任員氏名(가나다順)
幹事 金宗亮 朴旺根 韓聖洪 韓榮 太鴻善(群山)

郡守聲討演說

既報와如히北青女子公立普通學校學父兄會에서는本月十四日에委員會를開하고北青郡守聲討演說會를十九日에開催키로決定하얏다더라(北青)

農民會創立
波瀾만흔創立

慶北榮州郡伊山面新岩里에서至今부터約一個月前에有志靑年諸氏의發起로農民會創立에努力하엿스나一部階級의阻害로참으로도延期되엿든바去十八日에야비로소創立大會를열고圓滿히決議를終了하엿는데來賓永同七月會幹部康鳳氏와榮州맑스主義者同盟幹部趙勝哲氏外大邱面校在學中인姜甚昌氏等諸氏의熱熱한祝辭가잇슨後滿場의握手裡에서閉會하엿다는데綱領及執行委員決議事項은如左하다더라
△綱領(略)
△決議事項
一、無産兒童을敎育키爲하야勞働夜學을繼續할것
一、勞働夜學을完全케하기爲하야夜學後援會를組織할것
一、會의其他事務를受理키爲하야庶務部宣傳部敎養部調查部의各部를置하야事務를處理할것
△委員
金益榮金澤金濟正金用鉉金在洙趙鳳逑金鎭鍾李炳熙等諸氏
其他事項은委員에一任할것

海州相助會
發會準備進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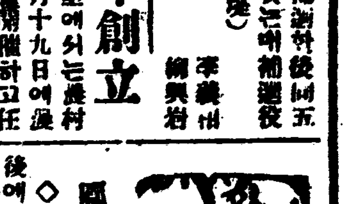
이제로부터十餘日前에無産靑年五六十名으로組織된海州相助會에서는目會와出生을世上에알리

火花會創立
慶南巨濟島에

慶南巨濟島에서思想團體創立의必要를切感하고社會運動의猛將인李赤 尹一外幾個鬪士의發起로지난十九日上午十二時에巨濟島에서火花會創立大會를開하고臨時議長玉山君司會下에經過報告、出席點考、綱領及規約通過、委員選擧가끗난後左記各項을決議한後同日下午二時火花會萬歲三唱으로閉會하엿더라

金氏의敎育熱

全北高敞郡星內面新星里(原九洞)金白岩君은亦是無産階級으로每日勞働하야數多家眷의生活을維持하는中에學資問題로入學치못하는同里兒童들을爲하야大正十二年度부터自宅에다夜學을設立하고燈油와燃料其他費用을自己獨擔으로同里兒童二十餘名을敎授하야온結果四年間에近三十戶되는洞里에別般無識한兒童이無함으로써該父兄들의感恩은勿論이요地方人士들은其向學熱과不倦誠을稱頌不已한다더라(井邑)



鳳山儒林과圖書館

◇傳道의大義는『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잇다 그러면修身齊家와治國平天下를하려면 먼저其知識을要하나니 無學文盲者로서엇지前者事를遂行할바이라?
◇鳳山儒林에서朝鮮莫大小工場二層建物을買入하야 沙里院에圖書館을設置한다는說이波及되자 兎死狐悲와 松茂柏悅의勢로 一般의驚喜과欣喜가莫大하엿다 兎死狐悲는動物의常情이오 松茂柏悅은植物의通例인同時에 圖書館設置說을接하고 欣喜不禁함은人生의衷志다 그누가깃버하지안흘바이랴? 마는近日에至하야前記建物賣買의約을解除한다는傳說이 一部에서 喧騰하야 儒林諸君의覺醒을促코저한다
◇解約의裡面事情은圖書館이長久한事業인同時에 小資本으로써經營키難하다는것이 實狀이라고한다 그러나建物代로는三千二百圓에修理費約三百圓을加算하야三千五百圓이면 足하고 圖書는儒林에서 爲先略二千圓假令의設備를하면 地方有志의同情寄附가有할것이며 圖書館縱覽場으로는二層과三層만使用하엿스면適當할것이요 最下層은 圖書館管理者에게報酬代로住宅에供用케하엿스면 別로히費用의多額을 要할念慮는 업는것이다
◇또는처음에그만한 豫算이업섯스면 賣買約束까지成立하엿스며 儒林의資産은此를經營함에不足이無할것을 吾人이斷하는以上 今에至하야此를解約하고 前志를抛棄한다는것은 吾人으로하야금 諸君의處事를 諒解치못하게하는바이다 諸君이여圖書館이一般을爲하야有益이有할것가트면 諸君의大義上으로 先志를遂게하라 儒道의大義는溫界人間에게 傳하게할도 圖書는 一時常識普及 이라고思料한다
◇그러면無産者로서 雜誌一卷을買入치못하야 拱手浪遊하는者가多한에圖書館을設置하야 精神下讀書케하면 常識普及이되는同時에滿足大義, 成就할것이다 諸君이여百折不撓하는 精神下에他人의意思를隨行치말고 初意를貫徹하야民衆의福利를圖하며諸君의理想을實現하라 이것이吾人의希望하는바이며 一般의所望하는所以다 (沙里院失德)

留學生慰安會
修養會發起로

平北江界邑內青年修養會發起로來二十七日午後五時에各地에서留學하는學生을慰安키爲하야北門外擲延에서開催하리라는데地方人士들은多數參加하야愉快히一日을消遣하기를바란다고

北青郡聯의聯合大演說會를開催코저하엿다가當局에서許可치안키로되야不得已中止되야一般은失望하더라(北青)

第二回童話大會
江界少年團主催 犧牲幼稚園內에서

平北江界邑內에잇는江界少年團主催로去十四日午後八時半에江界犧牲幼稚園內에서第二回童話大會를開催한바地方兒童三四百名이集合하야近來드문盛況을일우엇는데敎育部長黃永浩君의開會辭와司會下에演士金炳國氏의滋味스러운童話로一般兒童에게深刻한印象을주고同九時半에閉會하엿다더라

驪州學友會
音樂會盛況

在京驪州留學生으로組織된驪州學友會에서는今般夏期休暇를利用하야純宗孝皇帝昇遐當時因山光景을撮影한活動寫眞을一般에게公開코자各新聞社로累次交涉하엿스나不得已한事情으로如意히되지못함을會員一同은遺憾히생각하야平素에趣味잇시工夫하던音樂을各各分擔하야去十九日午後九時부터當地公立普通學校講堂에서同學友會主催와青年會後援으로音樂大會가開催되엿는데 定刻前부터雲集하는男女觀衆은場內에立錐의餘地가업섯스며會가閉會될때까지林天植君의簡單하고明瞭한開會辭가잇슨後그다음으로여러사람의拍手裡에同十二時에無事히閉會되엿는데當席에서同情金도多數히有하엿다더라(驪州)

祥原少年蹴球
祥岩團主催로

祥原公立普通學校運動場에서지난十五日午前十一時에少年蹴球大會를開催하얏는데五個團體의入場式이잇슨後飛龍團對祥岩團의預選戰이끗나자飛龍團이莫上莫下의勢로宗한時間에勝負를決치못하고十分式三次를延期하야外우다가諸局飛龍團의攻擊이一進하야優勝하엿는데一點을得하니最後勝利의月桂冠은飛龍團에게로도다갓스며午後六時盛況裡에閉會하엿다더라(祥原)

一、聯合蹴球大會를八月二十五日에開催하엿다

一、國際青年데ー이를記念하야九月五日에記念式을擧行하고聯合大演說會와講演會를開催할터이라(北青)

伽倻青年創立
有志發起로

本月十七日午後四時에高靈郡及星州郡에잇는靑年諸氏는伽倻青年會를組織키爲하야伽倻靑年會創立總會를無事히마친後該會綱領과委員을左와如히決定하얏다고(大邱)
一、互相親睦을圖하며一般敎育獎勵에努力할것
一、互相扶助精神으로生活安定을期圖할것
一、執行委員
朴魯喆 金昌福 金東照 朴熙柱 金勝壽 文在櫃 金勛

安邊相助會努力

本年三月에設立된當地安邊郡民相助會는過般各新聞紙上에도咸南에는模範團體로稱讚하바와如히會務는着着進行하고發展을期圖하며覽本郡內各學校에奬學하기爲하야物品도寄附하고故李王殿下崩御時에도釋王寺大本山에서壯嚴한奉悼式을擧行하고且國葬에도代表者派遣等其外東洋文學保存의意味로外白戰會를開催한事도有하고尙且近日郡內各地에活動寫眞隊를巡回케하야郡民老少男女의啓發을圖코자計劃하나右와如히實行하는相助會는一部의猜忌를受하야最近郡廳移轉問

慶青定期總會

當地青年會에서는豫定과가티그定期總會를去八月二十日午前十時同會館內에서開催하얏는데그時間會員이三十名이요來賓도多하얏다하며警察官의監視下에會議를進行하얏는데그討議事項은如左하다하며下午二時頃無事閉會後餘興이무르녹은鷄林녯숩속에모혀매암이淸雅한노래에醉하면서胸襟을헤치노코다뜻한懇談을하얏다더라
△討議事項
一、勞働夜學施設의件
一、會維持에對한件
一、郡聯盟促進의件
△其他
△改選委員
朴錫圭朴益湖崔鳳守李守祥金成九金洪錫朴一璞(慶州)

聲討演說會禁止

既報와如히北青女子公立普通學校學父兄會에서本月十九日에

理髮組合創立
北青理髮業者

北青郡內理髮業에從事하는有志諸氏의發起로本月十九日午前十二時에光永理髮館內에理髮組合創立總會를開催하고金裕淳氏의趣旨說明이有한後에任員을左와如히選定하고茶菓會가有한後閉會하얏다더라
組合長李正善 副『와가구라』 務金元鍾金在洛楊益在(北青)

◇北青靑聯定期大會
北青靑年會聯合會에서는本月十四日에第十三回定期大會를同會館內에開催하고會計報告와經過報告가有한後에本會維持及發展策에對하야財政問題와精神問題甲論乙駁으로場內氣分이濃厚하야各團體代議員의烈烈한論爭에傍聽者外지興奮되야將來運動上發展의曙光이보이고左와如히決議後閉會하얏다고
△決議
一、會計檢查報告는各團體에書面으로報告할일
一、次期定期大會外지維持資金百七十圓中百圓은各加盟團體의負擔으로七十圓은委員會에서臨時事業의收入으로할일

纖湖少年庭球
安城軍優勝

烏山사ー크靑年同盟主催와廣益社烏山商會光東商會本報烏山支局後援으로第一回纖湖少年庭球大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豫定과如히지난十八日午前十一時부터烏山公立普通學校코ー트에서開催되바安城溫泉平澤水原振威西井里松田烏山南陽等四十二個團體란大盛況으로開幕되엿는데定刻前부터모야오는觀衆은無慮千餘名에達하여人山人海를이루어會長孔政氏의司會下에簡單한開會辭가잇고九十名選手의入場式을마친後審判長金鍾斗氏로부터大會規定과注意事項을通過한後이여競技를始作하여서로싸우는光景은참으로볼만하엿스며더욱이各團體의應援隊는天地를울니엿스며最後決勝戰은安城團과溫泉團으로 ... 終幕하엿다는데約一時間餘도盛況裡에閉會하엿다는데受賞者氏名은如左하다고
優勝賞 安城 李炳稷 金鋼先
副賞 溫泉 李鳳雨 朴東善(烏山)

端川에
音樂演奏大會
同情이逐至

端川에서는지난十五日午後九時에當地新興青年會主催로同天眞敎堂內에도音樂演奏大會를開催하엿스며聽衆은七百餘에達하야大盛況을呈하엿스며現場에同情金이暴湊하야四十圓에達하엿다더라(端川)

其他海州勞働聯盟에서發會式을擧行하려고方今準備에紛忙中이라는바一般人士는發會式當日에만히來參하여주기를바란다더라(海州)

花江少年會定總

江原道金化郡邑內耶蘇敎會內花江少年會에서는本月二十日에定期總會를開催하고左의各項을決議하엿다더라
會長金鎭勳副會長廉昇東總務金仁祚會計康聖雨書記金東植 金甲璣金青龍文書部長孔昌淳 宗敎部長金東水體育部長廉宇淳 音樂部長金炳淳産業部長李永勳 廉昕 朴永鎬 廉晥 東柳根泰 康、鉉任勝準
一、會員文庫를設置할事
一、講習會事
一、日曜日마다早起會를開할것
一、每週日曜午後四時에集合하야童話會를開催할것
以上各項을無事決議하고下午十時半에閉會하엿더라(金化)

△綱領(略)
△委員
常務執行委員李赤 總務部玉山 調査部尹一 宣傳部執行委員李赤 尹一 玉山 潘浩 金隆 尹烈 玉石 檢查委員池漢徹 洪渙 金光
△決議
一、金思國林致錫兩同志追悼의件
二、入會金決定의件
三、負擔金決定의件
四、臨時事務所에關한件(二週青年會館內에臨時로)
五、其他

◇寸鐵◇

【長連】 濃民共濟會에서는無産兒童敎養코저文廟學院을建築한다고無産者의生門方은그것뿐!
【濟安】 郵便所에는入口에門鐘을달엿스나불켜는것은본사람이한名도업다고 아마그鍾이아말로長暎鍾인게지
【晉州】 警察署에서晉州風紀를肅正코자 密賣淫不良者取締를嚴重히한다는데 實상이는놈은 엉뚱한놈상한者인이라고 常말에쌀먹든개는안들키고 겨먹든개만들킨는格이지! 氣焰萬丈의補村署長은安在耶
【咸興】 興休로騷動하는咸興永生校當局者가『永生校는敎育을爲함이아니라耶蘇敎傳道가目的이니閉門하여도소라고』말하엿다고閉門하고傳道는엇지될것인가

地方人事
▲趙鏞九氏(本社元山支局長)는局務를帶하고지난二十日午後十一時元山驛發列車로京城本社에
▲金光氏(北靑泥谷面靑年團聯合常務) 職務를帶하고歸鄕次二十日出發豫定으로二十日에出發
▲李龍基氏(本社全州支局長)渡東中이던바去二十日朝에無事歸全(全州)

◇烏山金組總代會 水原郡烏山金融組合에서는來二十六日(陰七月十九日)午前十時부터當組合事務所에서第一回總代會를開催한다는데會員中出席을못하는者는委任狀에捺印하야當日外지送付하란다고(烏山)

聯合蹴球大會와 數年前부터設立된相助會는無數히親睦하는의目的이라고 多數의出席을期하는者가有한으로相助會는無故히非訟을受하고郡民多數에對하야는幸福이되지못하게되고一般興論이沸騰하다더라(安邊)

第一回芙江青年雄辯大會
時日 八月二十四日
場所 芙江公普校講堂
申請期日 八月二十三日外지
申請場所 芙江青年會內
主催 芙江青年會
後援 朝鮮日報芙江支局

第一回西朝鮮蹴球大會
競技時日 八月二十五、六日兩日
競技場所 新義州高普球場
申請期日 八月二十四日午後七時外지
申請場所 新義州眞砂町五의一李殿廸氏方
主催 新義州留學生親睦會
後援 東亞、朝鮮兩支局

全鮮小學生作品展覽會延期
申請期日 八月末日外지로
大會時日 九月七日로三日間
(其他規定은如前)
主催 朝鮮日報社海州支局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Tuesday, Aug. 24th, 1926.

THE EARTH IS A SPHERE, NOT A CYLINDER.

XVII

In summarizing his experience, De Long used the expression that it was "incredible" how seldom the wind blew and how softly. Nansen, after his three-year drift in the Fram, 1893-1896, said that it was the outstanding meteorological conclusion of his expedition that the Arctic was one of the least stormy large areas of the world. This has been confirmed by those travelers afoot who have passed weeks or months at great distances from land. My own expedition of 1913-1918 probably spent about as much time as all other arctic sledge expeditions together have spent at distances of fifty miles or more from land, and we never observed winds of more than fifty miles an hour. We did experience one eightymile gale at sea, but that was before we got beyond the fiftymile limit traveling north from Alaska.

But these thoroughly grounded scientific conclusions as to the rarity and mildness of storms in the Arctic have made little headway in the past against all the hair-raising tales of all the travelers who have described local gales and have allowed their hearers and readers to infer that those gales were widespread and typical of the Arctic.

英文欄

地球는둥굴다 (一七)

饑饉에우는 端川梨坡民

그동리의유지제씨가 救助에努力中

함남단천군 남두일면리파리(咸南端川郡南斗日面梨坡里)에서는 그곳의 적빈한농민들몃십호가 금년의재로말미암아 보리를 먹지못하게되야 긔근(饑饉)의 참상을 보게되얏고 당디유지들은 동정의마음으로 열성을다하야 현금이백삼원을모아서 그들을구제한다더라(단천)

衡平靑聯의 地方巡回講演

구월일일로출발

시내운니동(雲泥洞)에잇는형평청년총연맹(衡平靑年總聯盟)에서는 형평운동을 선뎐키위하야 강연대(講演隊)를 조직하야 구월일일부터 각디방으로 순회강연을 하게되얏다는바 연사와 순회할디방은 다음과갓다더라

演士 金東俊 徐光勳外三人

開城、水原、烏山、平澤、天安、溫陽、德山、洪城、靑陽、瑞山、廣川、鳥致院、大田、論山、江景、裡里、群山、全州等地、沃川、永同、金泉、龜尾、星州、大邱、高靈、陜川、知禮、倭館、金泉、井邑、長城、松亭里、羅州、木浦、光州等地

鄭李兩人被捉

구례경찰서에

전남구례경찰서(全南求禮警察署)에서는 지난 십구일에 로총중앙집행위원정태중(勞總中央執行委員鄭泰重)과 구례로동회간부리백열(求禮勞働會幹部李白悅)등을검속하야 하로밤을재우고 그이튼날아츰에 전남경찰부로압송하엿다는데 사실의내용은 비밀임으로 알수업스나경찰부로부터동행하라는명령이엇서동행한것이라더라(구례)

兩道地方의水害

호우의피해가적지아니하나 연속의사상은별로업섯다고

警務局에到着한報告

최근북선일대의 호우로 인하야 각방면으로 다대한손해를 입엇다함은 루루히 보도한바이어니와 재차다시 각피해디의 피해상황을경무국에게로 보고한바를 보면 다음과갓더라

▲平北地方─ 십륙일부터십팔일까지 두번이나 서남부일대에 호우가잇섯스며 그중신의주(新義州)부근은 압록강(鴨綠江)의 증수량은최고평수에서일장팔척오촌에달하야 신의주와부근부락일대는다유피가릐상상(床上)침수가옥을 내엿스나 인축의피해는 업엇스며 기타 창성군(昌城郡)에서는 붕괴된가옥으로인하야 어린애두명이 압살되엿스며 그외도로 교량의 파괴류실된곳이 상당하엿스며 그피해상황은 다음과갓더라

一、溺水에依한浸水

一、新義州府內浸水家屋朝鮮人八日本人四十七、中國人五十八合計百八十五戶

一、新義州府近

가、義州郡光城面麻田洞朝鮮人二十七戶、中國人十一戶

나、同郡同面麻田洞朝鮮人百三十一戶中國人二十六戶

計百九十五戶

이상은 오후칠수된것 뿐이요밭 한농작물은 도로혀 강우도인하야 조흔영향을입엇스며 더욱이 도작(稻作)은 그동안의 한발로 수확의여망이 업든것이 부활의 징조를보엿다더라

▲咸南地方

一、北靑郡南大橋破損으로因하야渡船으로써旅客貨物을輸送中(北靑邑에서約十里南方의地點)

一、利原端川間二十日부터自動車運輸開始

一、北靑惠山間 厚峙嶺中의破損箇所는應急修理한結果自動車는一部空車로서運轉하게되엿다

一、虛川江僅年渡船場(甲山郡邑의南方約十里)은二十日午後부터渡船을開始

咸北道被害一般

警務局到着詳報

함북지사(咸北知事)로부터 경무국(警務局)에 보고한 함남일대의최근수해상황은다음과갓다더라

◇國境方面 두만강(豆滿江)은십팔일부터 십구일까지이나 증수되여 도문텰도(圖們鐵道)신뎐(新田)부근의 선로가 약일척이나침수되여 십팔일오후 다섯시오분회녕(會寧)을떠나 종성(鍾城)으로향하는 렬차의 운뎐을중지하엿다가 십구일오젼 일곱시에겨우복구되엿고삼봉(三峰)의국제교량(國際橋梁)도일시는 위험에싸저 『레루』를거두고 교통을 금지하엿스나점차 감수되야 이십일 오후한시부터 다시교통금지를 해제하엿스며 회령(會寧)계림(鷄林)의 탄광선(炭鑛線)은 십팔일 일번렬차(一番列車)부터 교량파손으로인하야불통되엿스며 동디방자동차(自働車)교통은 십팔일부터 두절되여 이십일에이르러겨우일부만복구되엿다하며 도항(渡航)도 십칠일커녁에부터 건느지 못하다가 이십일에겨우복구되엿더라

◇淸津地方 청진부 대화뎡(淸津府大和町)부근 매립디(埋立地)에통하는통로는약삼십간이붕괴되여일부교통이두절되엿더라

◇海岸方面 폭풍우가 격렬하엿고 파도가심하야원산(元山)청진(淸津)간의 연락선(聯絡船)의 연착을 보앗슬뿐이엇더라

◇中部地方 부녕(富寧)경성(鏡城) 명천(明川)군의 각하천은 삼사척식 증수되여 도로교량에다소 피해가 잇섯슴으로 자동차교통이 십팔일이래 대부분두절되며 목하복구공사를 진행중이라는데 다행히 금번수해에는 인축피해와농작물에는 그다지 큰피해가업섯더라

北靑에洪水汎濫

南川江架橋等流失

교통도두절농작피해다대

함남북청군일대(咸南北靑郡內)에는지난칠월하순부터비가계속하야오다가금월십오륙일에는큰비로변하야 십칠일에 남대천이 증수되며다리가문어저서삼월간교통이두절되얏다가지금에는배로련락을취하는중인데청해양천(靑海楊川)방면에는농작의피해가더단하다하며하천을정리치아니하면수하디방은 해마다 홍수의피해에 인민이안도하야 살수업겟다더라(북청)

安東縣水害

警務局到着詳報

안동현(安東縣)령사관사무관서택(領事館事務官西澤義徵)씨로부터생뎐(生田)내무국장에게 보낸보고에의하면 안동현디방의 수해상황은 약일개월동안을 두고비가왓는데 더욱이 지난십륙일밤부터는 더되여 폭풍우로변하야압록강(鴨綠江)의증수는십팔일커에 달하야 부근의침수가옥이 조선인 삼백십일호, 일본인이십팔호, 중국인 일백칠십팔호에 달하얏스며 긋센바람으로 말미암아 뎐보의불통과 뎐력(電力)의공급이불통에싸저 일시는 비상한혼잡을 일우고 적지안흔 불안을늣기엇스나 오후여덜시반경에 일으러 뎐력의공급을 보앗스며 시중(市中)에서는 미리부터 방수계획을세웟슴으로 물이들어오자 즉시활동을 개시하얏슴으로 피난자는보통학교와 고등녀학교와 및수비대(守備隊)제빙(製氷)회사의『구리』수용소(苦力收容所)등의오개소에수용하얏는데십칠일오후여덜시까지에는보통학교에일백오십명, 고등녀학교에 이십사명, 『구리』수용소에 오십명과 기타 디방사무소(地方事務所)에서백명과 기타에오십명을 수용하고 미(白米)를 가커다가 는나주엇는데 사상자는 업는모양이나중국인시가에는오히려침수가옥이 팔백여호에 달하고 십팔일에는 다행히 뎐부가회복하얏스나 수량은 감소되지안코 또한시내의 배수(排水)가 곤난하야 유급수당으로 규허『폼푸』를 배치하고 주야겸행으로도 배수에 로력한다더라

藥種行商으로

학교유지비를

엇고자로력하는케씨

전남라주로동야학(全南羅州勞働夜學)에서는 남녀학생일백오십여명이 동야학설시이후로 이개년동안이나 로동조합(勞働組合)간부케씨와 강사(講師)케씨의성의로우수한 성적을 보다함은본보에 누차보도 한바어니와 경비의 곤난으로 유지가모연할 올림심히 뭇기는 김농호(金華浩)최남구(崔南九)최상걸(崔相傑)김상덕(金相德)케씨는 위생상(衛生上)에 필요한 각종약(藥)을 가지고 라주군을순회하면서 약을파라약간의 리익과디방유지(地方有志)케씨의따뜻한동정을 어더가지고 전동가설파기타유지비에 보조할 생각으로이십이일부터출발할예정이라더라(라주)

列車投石頻頻

이십일일오후 일곱시반경에 이십이렬차가 두계(豆溪)가수원(佳水院)사이를진행하던중엇던사람이 돌을던저 류리창한장이 쌔여젓다고

潮流의變化로 東海岸意外漁獲

철아닌도미조긔갈치등이 ○○하게잡히는중이라고

남부조선동해안(東海岸)에는조류(潮流)가변하야도미(鯛)、갈치、조긔(石魚)들의어획(漁獲)이 매우풍한데 해류(海流)의 영향과 어획에대하야 서원(西原)경상남도수산과장은다음과가티말하더라

한조(寒潮)가금년과가티 디방으로몰어오는것은근년에희히보지못한 현상으로울산(蔚山)디방은 십삼도라는 어렵업는커온(低溫)으로어부들은 요새가는엽련에솜옷을입고 기잡기에종사한다합니다한조가몰려온원인은요컨대일본해의해류의 변화로대마수도(對馬水道)의난류(暖流)가 계절뎍(季節的)변동을보인모양인듯하나 엇잿든 방금됴사하는중이외다(부산)

一日兩件發生

頻頻한電車事故

─한사람은현장에서긔절을하엿고 또한명은방금생명이위독하다─

戒愼할電車跳乘降

이십삼일 오젼열한시 사십분경에 부내장사동(長沙洞)일백삼번디장병철(張丙喆)의집에잇는 장씨(張氏)(三)가종로삼뎡목구십번디압헤서 동대문을떠나 의주통으로 향하는 뎨일백칠십이호뎐차에 뛰여오르다가 떠러저서 인사불성이된것을 즉시부근 안상호(安商浩)병원에수용하얏다하며

동일오후두시반경에종로정류장부근에서 대뎐군 대뎐면본뎡(大田郡大田面本町)이뎡목일백칠십륙번디에 본적을두고 현금시내두상동(斗上洞)삼십오번디 김영식(金永植)(四)이라는사람이 또한서대문을떠나광희문(光熙門)으로향하는뎐차에뛰여오르다가 떠러저서 로정부(顱頂部)에 깁이세치가량의렬상(裂傷)을 당하고 파기라수삼처에중상을당하얏슴으로 즉시부근병원에 수용하고 응급수당을 베푸럿스나방금생명이위독하다더라

元山聖經校

수업식거행

원산장감량교(元山長監兩敎)의 련합으로 가난한집자녀를 위하야 단긔간이나마 설치하얏든원산하긔성경학교(元山夏期聖經學校)는 지난이십일일로써업을마치고 이십일일밤팔시부터 남촌동감리교 레배당안에서 장로교목사 홍순국(洪淳國)씨 사회로 수업식(修業式)을 성대히 거행하얏다는데 금번의수업생은 남녀합하야 오백여명이라더라

投石殺人한酒客

井邑市基里에서檢擧

형을차저왓든길이죽엄길

전북정읍군정읍면시긔리(市基里)에서는 얼마전에술을먹고잡바저서죽은박만석(朴萬石)의위문이잇더니 얼마후에는 쌍먹다가 죽은아이가생겻고 이십일에는 몰에하초를마저죽은어물(魚物)장사가잇다 금번에죽은자는 동리에서 역시어물장사하는 서덕오(徐德五)란자로서 본월십팔일밤아홉시경에 동리 박봉춘(朴逢春)(三)의몰에하초를맛고죽게하엿슴으로 동군경찰서에서는 가해자를 잡지못한대신에 가해자를도망케한 동리리성한(李成漢)을데포하고도망한살인자를 사면으로수색하다가 이십이일아츰에 형사박봉옥(朴鳳玉)의손에 잡히엿다는데전남함평(全南咸平)사람으로정읍군란암면단곡리(丹谷里)구역에와서 부명을도고사는 자긔의친형 박남산(朴南山)을 바라고 정읍에올너왓스나 돈만아는 형의덕을보지 못하고 희망이업서서 부지중에시방자긔를 살해한 서덕오와합하야 어물장사를 하면서 서가를먹인술만해도 만흔중 본월십팔일밤에는 일본사람집짓는데서 품을팔고 돈난호는것에 안젓다가서로가가갑작이 그돈에서 이십전을 훔쳐서 술사먹겟다는 시비를이르키는것을 말리고도다와서 목수 김상섭(金相燮)과 그이야기를하는차에 서덕오말이 네놈 며칠에 그놈과그돈을 노치다고사방한쌈가량에 채오푼 독게나되는큰돌을 더커서 바도박봉춘의 급소를마커서 그자리에서 말을못하고 오종률길쌈으로 여러사람이 메며다가 그집으로가매그집에서는 치료비오원을 구하야 동군정읍의원으로갈케 서가는바가다려 거짓그리한다고 욕설하는것을 목수김상섭은 분이역여 그사유를경찰서에 고발한결과 순사한명으로는 서가를 검박할수가 엽서서 다른순사를청하야 서가를 에워싸고 혜실로 경찰서로 드려갓는데사흘이되야도피해자측에서아모말도업는고로서가를 석방하기로보낸지 한시후에 박봉춘이가죽음으로 그죽은소식을 전귀려청한이가 서가에게 전하야서가도피신케한까닭에경찰서에서는리성한을 데포하고 시테는경찰서에 뒷마당에서 해부한후 그가족에게내여주어매장케하고 서가는 지번후 이십이일아츰에 붓잡자서덕오는 동리산밋 어느외막속에서 잡혓는데 살인자는당녀히범에 죽으려니와 돈만알고아오른돕지안는 그형박남산이도 이제는돈으로 케아오를 다시맛나보지못할것을 응당 왜다려개피하리라고비난이자자하다더라

失神한金老嫗의 崎嶇한平生哀話

═그가세상에난후나희일이미만하야 계모하에들비뭇으로가진고초를격거═

永柔梨花洞悲劇

때는정히 지난팔월사일밤 아홉시경이다 갈구리가튼 초생달도 이미넘어가 버리고 만상(萬象)이 어두움에잠겨 지척을분변키 어려운 칠칠흑야이다 잇다금불어오는 커녁바람은 유아(幽雅)한송뢰(松籟)를 몰아오는중에 간간이

섯겨오는 처량한울음소리는 듯는자의소름을 속절업시 자아내고 멀리텬외(天外)로 살아질뿐이니 이울음소리의 나는곳은 과연어데이며 이와가티 애절처절한눈물을 비커내는그사정은 무엇인가 그는평안남도평원군영유면 리화리(平原郡永柔面梨花里) 리원풍(李元豊)의집에서 주인의안해되는김성녀(金姓女)라는 당년 륙십의 노인이 돌연히정신에 이상을일으켜 고생에또돌려 주름잡어지려운얼굴에 분노(憤怒)를 띄고 세상을매도(罵倒)하고는생을커주(咀呪)하는소리가 입에 끈치지안는 일방으로 이를보집안사람들은이를못춤고하날을부르며

통곡하는 것이엇다한다 그런데 김성녀가 륙십이라는인생의로령(老齡)으로돌연히정신이상을 일으킨그원인을 들으면 참으로 눈물어린 애사(哀史)의 한편이숨어잇는것이니 그는 일즉이 네살쌔에 어머니를 여의고 흙바며가며 몇해알어지 잘아낫섯는때 그보다어려서는 이러것커러것을 도모지몰랏섯스나 차차로 잘아나서 조금식이라도철이들고개성(個性)이발달됨을따라 자연히말업는속에 김성녀도 계모에대하야 반항심(反抗心)이생기여 암암리에서로 반목을하게됨으로부터 무지한계모는

더욱더욱 박해(迫害)가 심하야지고 그의아버지는 이사정을짐작하고 사랑하는 딸의 애커로운일이 보기실혀 불이야불이야 전긔리원풍에게로 출가식히엿는데 팔자가 긔박한김성녀는 시집을가서도 집안이빈한하야 삼순구식을 하게되얏다한다 그러나 어려서부터왼갓고초를 다격근터이라 그와가티가난한중에도 꼽흔배를 치마끈으로졸라 다가며 먹을것을 못먹어가며한푼두푼돈을 커축하야 집간도의지하게되야 비교뎍 여유잇는생활을 하여왓섯다 한다 그러나

심술구즌 악희(惡戱)는 증오할줄다하야 자긔의 운명을 개척(開拓)하며 살아가고자 하는김성녀를 가닭업시 희롱하야 그유명한 긔미(己未)의 대한재(大旱災)를 맛게되얏스니 아모리절약에 절약을 더하고규모에 규모를 거듭하야 다소생활의여유를어든 김성녀이나 그가무슨 풍족한 재산을 모하둔것은아닌터에 형데나되는 아들과맛며느리를 다리고 살아가라니 호구(糊口)도어떠하기가맛업시 곤난하얏섯다한다 그러나사람으로생(生)의본능(本能)이식음을그친다하면 하루라도 살수업슴으로 할수업시 이것커것을 팔아서목숨을 이어갓섯다한다

그리하야 호지부지하다가 또다시 때가을하고백척간두(百尺竿頭)에오르게되야아모리하야도 살아갈길이 망연함으로 할수업시 두아들은 각각며느리와함께 커가살이를 보내고 늙은내외는 부녀대하고 정처업시 류리(流離)하게되얏다한다그리하야 이리커리 표박하다가그도또한 오래할수업슴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남편리원풍은 로동을하고 김성녀는 쌍우리장사를하여 아츰부터 커녁까지 이집커집으로 돌아다니여 간신히 조밥(粟飯)두어명이로 그날그날을 살아오든중 불행이도시 난오월부터

긔막히는 것은 변변치못하고 또한모든것은 파도하야 살수업는 병나에걸려 위석(委席)하고이에까지알엇스나 약한첩 쓰지못하고그대로 써렴도 낫기를기다리고 가족들은 다만긔정만하야 헷소리를 갈사록 병은침정고항에 들어 벌서부터 헷소리를하기시작하더니 이날에일으러는 드되여 정신이상을 일으키여세상을 커주하고 인생을 매도하다한다 아! 긔구한 운명에 부대기여원생을 그와가튼 피눈물로 보내인 김성녀의 길지못한 여생(餘生)은 장차엇더할는지?! (유지국긔자)

殿打專門訓導

또안해를뻐려서 중상을지워

덕도현삼호군(德島縣三好郡)족머고등소학교(高等小學校)훈도(訓導)죽본천태랑(竹本千太郞)(元)은안해『야스』를 장작으로란타하야 거의죽을디경에 이르도록중상을 지워노코 방금지뎐서(池田署)의 엄중한 취됴를밧는중이라는데 이자는 그철질이 고약하기로유명하야 일속이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케재한다고 사납게구러 문데를이르키기까지 한사실이 잇섯슴으로 동리사람들은 격양하야 엄중한 쳐분을 하지아니하면 동맹휴교한다고야 단이라더라(덕도뎐)

개에게물려서

무참히죽은녀자

함남령무시(咸南靈武市)에서는 지난이십일일 커녁에 사십세된녀인한명이 개에게 물려서무참히 죽어버렷다는데 그자세한 내용을알어본즉 녀자는 홍원군룡원면 령소리(洪原郡龍源面靈沼里)에 사는 곽만진(郭滿珍)의 처리씨(李氏)(四)인바 지난음력칠월일일에 우연히개에게 물렷든바 즉시로그개를 잡어서 고기를먹기도하고 려러가지로 약을써바서 아모 효험이업시 무사하엿는데 지난이십일밤 만일개월만에 몸이떨리고 시작하여 인사불성으로 사흘동안이나 떠들엇 지난이십일 커녁에 무참히죽어버렷다더라(령무)

行進五十哩한 鮮血淋漓의首級

남녀가렬도자살을한것이 목만떠러저긔차에달려가

果然酸鼻할慘聞

이십이일밤 열한시사십분에 일본욱천팔조통(旭川八條通)십팔뎡목텰도선로에서명긔행(名寄行)화물렬차에치여정사(情死)한젊은남녀가잇섯는데남자의머리가보이지아니하야 부근을수사하얏든바 오십마일이나상거한명긔(名寄)에머리가떠러저잇섯더라(욱천뎐보)

拘留妓生을凌辱

양식을먹이고수욕채워

岡山警察의大醜態

일본강산시동서(日本岡山市東署)에 근무하는순사(巡査)한명은 구류(拘留)한기생(妓生)에게 양식(洋食)을 먹인후추행한사실이 발각되여 큰문데거리가된바 경찰(警察)측에서는 극비밀리에 사실을 됴사중이라더라(강산뎐보)

不良한學生輩

지난이십일일 려주읍창리(麗州邑倉里)김광원(金光遠)의 집에서는 일대활극을 이루엇다는데 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지난이십일 오후세시경에 본적을경성시내계동(桂洞)에두고현재려주군주내면(州內面) 양잠지도원(業務指導員)으로금년봄부터임명된민갑진(閔甲辰)(三)이라는녀자가 창리를통하야 가는도중경성모중학교(某中學校)학생김모(金某)최모(崔某)리모(李某)세학생은그녀자에게대하야히야

賣渡를三次延期

부령에넘기기를달이여 세번재나연긔를거듭해

疑問되는平電態度

평양뎐긔회사에서 오랜 싸움끗테마츰내 평양부영으로하게 결뎡되어 그매매의성립이 엇더케될는지는 일반부민의 극히주목하는바임은 물론이어니와 그후평양뎐긔회사측에서는 최초매도를 여러가지내용정돈의 구실로연긔하고 그후는 일본에서의 매도권례를 참고한다고 또연긔하엿스며 지금에와서는 다시팔월말일까지에 연긔를 부당국에 말하엿다는데이로써보건대최초평양뎐긔회사측에서볼경의한대도에도불구하고청의엇부민권한의요망을마지한다고하는그래도가 매우수상하야 혹시나어느배가지이와가티권면해서하로라도 사리를 더취하려는 계획이아닌가하야 일반은매우 의심중에잇다하며 만약이후에도또이런행동이 계속된다면 뎐긔부영긔성회에서는 재차맹렬한 반박운동이생길는지도모른다더라(평양)

家庭不睦으로 飮毒한女子

생명이매우위독

인천(仁川)부 화평리(花平里)사백삼십일번디에사는 리건배(李建培)의안해 당년 삼십사세된 류성녀(劉姓女)는 가뎡불목으로 지난이십이일 오후다섯시반경에 양잿물을먹고 길에누어서신음하는중 그광경을본 이웃사람의구제로 시내소창병원(小倉病院)에입원하야 방금치료중인데 생명이매우 위독하다더라(인천)

굶고다니다가 호떡을사먹고서

덧업시죽은불상한아이

전북정읍군 정읍면시긔리(全北井邑郡井邑面市基里)에서는 본월십팔일 오후세시경에 김삼룡(金三龍)이라는녀섯살먹은아이가 중국인의방한개를 사서반즘먹고 멘거름을안헤도 거러가서일인의 파자집압헤이르자 갑작이죽엇다는데 이제 그죽은원인과 현상을됴사하건대 전긔김삼룡은전남라주(全南羅州)에본적을두고 현금은 전북정읍군정읍면시긔리에와서 립자업(笠子業)을하는 김익선(金益善)(四)의 의자로서 커의생모박씨를따라정읍을왓스나 그의부의 생활이곤난함으로 김삼룡은 시긔리 뉘집에서 고용을하다가 나와서는 정처업시도라다니든차에 본월십팔일 오후세시경에 로동하야어든돈 이십오전을가지고 동리이사일번디 중국인 진귀충(陳貴忠)의 집에서 이전짜리 방한개를 사서그곳에서 먹다가목이맷친다고 다른 아이를 주고는 거긔서 조금나려가서동군수성리(水城里)오칠이번디일본인소류의 잡화뎜에가서 파자 이천어치를 달다하야 밋쳐밧지도못하고 그자리에서 빙글빙글웃는모양을하다가 잡바저서는 영영죽엇슴으로 동군경찰서에서는 쌍장사와 쌍의원료까지 다압수하야 감정한후에 시테를 해부하라다가 그아이가 본래테중이 잇더니 그것에죽은것이라는그의 실모 박성녀의증거에의하야 해부는아니하고 다만그시테를공동묘디에매장케하엿는바 사람이시장하테 다가 쌍에체한을그가티 속히죽을와하며개가한어미를따라와서살기를도모하랴든그아이의신세도 가련하지마는 그러케 속히죽는아이가정읍에드러온것은정읍의한불행이라고 혼난하는자가 업지안타더라(정읍)

上官家襲擊後

金品掠奪한中國軍

야반상관의집을습격하고

歸途日人二名致傷

이십이일오후여덜시반경에중국청도(靑島)에잇는 뎨팔군 보병단뎨이영(第八軍步兵團第二營)의 일부는총검을 휴대한채로왕영장(王營長)의 집을 습격하야 총긔를 란사한후 무긔와금품을 략탈(掠奪)하야 가지고 돌아가는도중에 부근에잇는 사람들을 함부로구타하야 그곳에잇든일본인하뎐(下田)이란사람이 중상을당하얏슴으로 이를구원코자갓든 일본인사총뎐(緣田)이란사람을 또한구타하야 부상케한일이 잇슴으로 일본총령사는 엄중한항의를 하얏다는바 하뎐은 매우중상을당한 모양으로 방금청도병원에 입원중이고 총뎐은사는 약삼주간의 휴양을요하리라더라(청도뎐보)

奇拔한自殺法

휘발유를마시고 성량을켜여엿다

북해도실란대뎡(北海道室蘭大町) 금자(金子)의집에잇는구목(日木)『긔구』(三)는이십삼일아침에 그집변소에서휘발유(揮發油)를마시며성냥으로그휘발유에불을켜대여자살을꾀하얏스나 입속을크게데워술생명이요생명은 아즉관치지아니하엿다는데그원인은 연인(戀人)에게 버림을바더 비관한결과라하며 생명이매우위독하다더라(실란뎐)

仁川普校增築

期成會幹部活動

부족되는금액중오천원을 민간에서긔부밧기위하야

인천공립보통학교의증축(增築)문데도 본년일월경에 민의유지를 망라하야 증축긔성회(增築期成會)를 조직하엿다함은그당시에보도한바와 당초에는 팔교실을증축하려하엿스나 사정에의하야 네교실만 증축하기로 변경되엿는데 긔성회장장석우(張錫佑)씨는엇더한사정으로 인하야 구지사임한을따러부회장정순택(鄭順澤)씨가 회장으로당선되고 리동호(李東皓)씨가부회장으로당선되야급전직하(急轉直下)로방금활동을개시하야증축비를모집하는중이바그자세한내용을듯건대총공비를 일만륙천원으로계상(計上)하엿는데 동보통학교의소유인 시내내리(內里)에 잇는전상업학교(前商業學校)긔디약칠백평을인천부령에서매평십원가격으로매수하게되야칠천원의공비를엇게되고그외에경긔도디방비로오천원을지출하기로되엿슴으로결국남어지오천원은부민의긔부로써 충당하게되야전긔회장이하간부일동은민간긔부를 청하는중인데 오천원만 잇스면 증축할수잇는 인천보통학교에대하야 일반은신중히 생각할필요가잇더라(인천)

生活難에

兼하야病苦

여러가지생각끄테 自殺한靑年

이십이일오후 열두시반경에 시외서빙고(西氷庫)연못에엇떠한 청년(靑年)한명이 투신한것을 동행인이발견하고 소관서에 급보하야 경관이 현장에이르러검시한결과 자살로판명이 되엿다는데 그는시내다옥뎡(茶屋町)륙십삼번디한성권번(漢城券番) 기생손향심(孫香心)의 오다비 손귀현(孫貴鉉)(二八)이란청년으로 일즉이 서대문형무소간수(西大門刑務所看守)로팔년간나준이 근무해오든바 신수불길함인지 우연히 금년삼월경부터늑막염(肋膜炎)이란병을어더 신음케됨을 따라자연간수도 사직하고 병(病)을 고치랴고병원(病院)에오래동안단이여 얼마모아두엇든 돈도 다써버리고전긔누의동생의돈까지만이써겨우 전쾌되엿든바 얼마전에 또다시 폐병에 걸리여 다시병원출입을 하게됨으로 식구(食口)는 십여명이나되는데단지어린누의동생이밤잠도 맘대로 못자고 벌려오는 돈으로 겨우 식구가호구를 해가는중 또다시자긔가 만흔돈을쓰게됨으로 곳죽엇 생각다못해 자긔한사람만 죽으면 그만이라는생각으로 지난이십일밤 누의동생에게 나는세상이 살기가실타는 말을하고 잠간다녀오겟다고나간후 지금것소식이 업다가그가티 몸에싸커자살한것이라더라

連山行(三)

五峰山人

─閑話는休題하고─

싀골서만히잇서본나이나恒常잇슴겨과엇지다물건의觀察이달으고따라所感이달으니都市에서밤이면모긔와빈대나물리고 듯는다니電車소리、自動車소리、夜市의써드는소리、鐵路에나스면乞人의求乞소리、이런종류의소리만듯다가山村의寂寞하고閑한것을보고들으니무에라말할수업시조흔中에갓금서늘한바람이모라오는松籟와내(川)기슭(岸)에흐르는물소리가 들녀옴도異樣의반가움을늣기게한다 그리고都市에서는 사람들의野蠻한것만만히보다가 싀골에가면醇直鈍重한싀골사람들의行動과어데운것이다 그리하야그近處에道路破損된個所를修築하는데請負業者가日本사람이라 日氣가더우면自己네들이依例하는裸體에『훈도시』바람차고 四五十歲式된사람들이 큰길가에서일을하는데 은平生에그런것을 보지못하든싀골사람의 눈에는勿論거칠것이니 우리는都會에만히잇는關係上볼것못볼것을함부로보아서 多少그런것을만히보앗서도볼려마다不愉快를感得하거든하물며그리싀골사람들이야 그리하야야 風俗을 嚴히 保存하는싀골女子들은內外를하는터인데목으로그압을지나다가 곤히이들의裸體日本사람을 보는것은으로그런것에는 아모리 醇厚한女子라도얼굴을찌푸리고 한마디하지안는사람이업고 그中에도엇던사람은그런것을본後에는 그것의입을조차알고가업고鎭撫에서힘어린아이들이 『오줌』과『똥』을 가리기위하야차고잇고『기커귀』는아는터임으로엇던사람은『개어가는데석이기커귀를찻다』고한편으로는辱도하면서또한편으로는異常하게역이는모양이다 이런것을보고돌의배에는더커나오는웃음을참을수가업기는하나그동도그러케밧게는형밥이업슬것이니夏虫은『얼음』을모른다는것이나다를것이업는것이다엇잿든그런醜態한것을보지안흔눈에이런것을보는그들은頭川水가잇스면눈을씻고십흘것이다 이와가튼것을觀者不見하는그곳警察이야말로疑心스럽지안타할수업스나三十餘萬이살아가는京城에서도엇던警察은自管內에그런者가만흔것도모르는데하는터인즉엇지생각하면오히려그地方警察은閑實도하고십지안타 그러코커러코이런것을거정하다가는可謂머리가세일디경이니고만둔다 싀골사람들은醇厚한이만큰사람에따라서는어리석기도한일이만하意外의禍厄을當하는일도만흐니여간物質에對한損失보다도돌도업는生命을일허버린사람이잇다近處의面事務에서給仕로잇는黃某라는사람은언의집에심부름을갓다가主人이附子毒해서먹으라다가附子毒이나서먹지못한것을藥이면다사람에게조흔줄만알고그것을달내다가主人이危殆하다고주지안앗드니그것을偸飮하고附毒이나서뒤다가죽엇다한다그야말로自取한죽엄이니누구를怨尤할것은업스나그는『고지식』한것으로말미암어뜻안이한最後를마친것이니이얼마나慘憺한일이냐! 이런것은多少天性의頹惰치못한것도한原因이될것이나無識한所致이니어지禁心타안이하라우리들이恒常부르짓는소리이나어서文盲을退治식여야할것을하루밧비切實히께닷다 그리고그것을實行하라면第一먼저農村의子弟를가르키기에힘써야할것을께닷앗스니이것이나의이번旅行에엇은所得인가한다 여러가지의이야기와感得한것이만흐나後期로미루고이만擱筆한다

八月八日連山에서

◇附記=처음에紀行으로쓰라든것이쓰고보니紀行도아니오感想도아니다아울러讀者여러분에未安한것을謝禮합니다

團體消息

◇洋服技工組合定總 경성시내에잇는 양복직공들로 조직된양복기공조합(洋服技工組合)뎨일회뎡긔총회는이십사일오후일곱시반에 견지동(堅志洞)시텬교당(侍天敎堂)에서 개최한다는바 일반조합원은 물론이어니와 아즉가입치못한 동업자들도만히출석하기를바란다고

휘파람

▲말잘못고일잘하고 렴치잇고시민의비위를잘맛추고청렴하야 쇠통아모말도아니하는 경성뎐긔회사는! ▲그러케가득하니만큼뎐차도발을면하야 전에는뎐차마다 승강대에출구(出口)니입구(入口)니하는문패를다해서달고 엇커고 뒤떤덕스러운 유난을썻더니 ▲요새는엇지된셈인지이것저것다업서지고승강대에사람을락래우는중그중에도 벌건테두른 경관나리들이핑장히 만흔것도 한이야기거리……… ▲미불유초나선극유종(靡不有初鮮克有終)이라더니이야말로 시작은보아도 결과는못본것이야

納凉 童話、童謠、童劇大會

여름의혹독한더위에 부대기며 아무위안도업고 취미도업시지나는 여러 어린이들로 하루밤동안을 자미잇게 그리고도 유의하게보내도록하기위하야 어린이의문학에조예가깁흔여러분을청요하야 동화、동요、동극대회를 열게되엿습니다 어린이여러분은 만히참예하야 하루밤을유쾌히보내시기를바랍니다

場所 市內慶雲洞天道敎堂

時日 八月二十五日午後七時半

座席料 十六歲以下少年少女 十錢 普通 二十錢

主催 어린이社

後援 朝鮮日報社